

밸런타인 데이 2021: 영원의 선언

2 월 14 일은 2001 년 이후 매해 그랬던 것처럼 블랑팡과 여성의 특별한 조우가 이루어지는 완벽한 날이다. 블랑팡은 21 번째 밸런타인 데이 스페셜 시리즈를 위해 빌레레 우먼 데이트 모델을 천상의 스타일로 해석한 28 개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다.

사랑하는 연인을 기리는 이 새로운 모델은 공기 같은 가벼움에 초점을 맞췄다. 화이트 머더오브펠 다이얼이 마치 구름 위로 날아올라간 듯한 느낌을 준다. 큐피드가 자신이 화살을 맞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장난스럽게 숨는 그런 구름 말이다. 모든 욕망의 원천이 되는 사랑의 마음을 시계의 악어가죽 스트랩과 매치되는 짙은 레드 컬러 하트 모양이 초침 끝에서 춤추듯 지나가며 형상화한다. 오픈워크 시침과 분침이 시계의 섬세한 매력을 강조하고,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챗터링과 베젤이 가세하며 고귀한 느낌을 더한다.

블랑팡에게 있어 여성은 뮤즈인 동시에 캡틴이다. 블랑팡은 그들 속에 내재된 섬세함에서 영감을 가져오고, 동시에 그들의 천성에 담긴 대담함을 반영한 메커니즘에 의해 구동하는 부드럽고 반짝이는 창조물을 만들어낸다. 33.2mm 사이즈 레드 골드 케이스의 이 시적인 시계 심장 안에는 셀프와인딩 *오토 율로제리* 무브먼트인 블랑팡 칼리버 1151 이 담겨 있다. 유명한 1150 칼리버를 베이스로 한 이 칼리버는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갖추고 있으며, 4 일 파워리저브 가능하고, 날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다. 내부의 퀄리티를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한 아름다움으로 여기는 블랑팡은 사파이어 케이스백을 통해 시간을 매력적으로 표시하는 섬세하고 정교한 장식과 작업을 엿볼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블랑팡과 여성 간의 마법과도 같은 연결고리는 메종이 최초의 셀프와인딩 여성용 손목시계를 만들어낸 1930 년 이래 계속해서 견고해졌다. 이 둘 간의 관계는 여성인 베티 피슈테르(Betty Fiechter)가 회사 경영을 맡으며 워치메이킹 매뉴팩처의 첫 대표가 된 3 년 후 더욱 공고히 다져졌다. 이후 블랑팡이 여성을 향한 애정을 드러내며 선보인 여성 타임피스들이 연달아 성공을 거두었다.

"밸런타인 데이 2021" 시계는 영원을 상징하는 새로운 정표라 할 수 있다. 블랑팡 스타일의 정수를 반영한 디자인의 은은한 우아함이 이 잼 세팅 타임피스를 진정 타임리스한 모델로 만들어준다. 이 시계가 단 28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인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사랑하는 이에게 이 소중한 선물을 선사하고 싶은 당신의 마음은 더욱 커질 것이다.